

김진표 의원 “입법부 수장으로 할 말 하는 의장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5선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부)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24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5선 이상민·조정식 의원과 4선 우상호 의원이 출마해 4파전으로 진행된 이번 경선에서 김 의원은 총 166표 가운데 절반을 넘는 89표를 얻어 우 의원(57표)을 앞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관료 출신의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격이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특정 계파색이 강하기보다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의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회,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 할 말을 하는 의장으로서 역할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 김 의원, ‘선당후사’ 자세 당위해 최선

부의장 후보엔 4선 김영주 의원 선출 “여야 소통 메시지로 협치 앞장설 것”

그는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며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장으로 선출되면 당적을 버려야 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그것을 잘하는 것이 정말로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의 이같은 언급과 관련,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개혁은 여야가 충분히 협력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혁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 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장으로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가운데서 실질적인 협치가 가능하다”며 “국회를 거수기로 생각해서는 협치가 제대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뒤 부의장 후보로는 4선 김영주 의원이 선출됐다. 5선 변재일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 승리했다.

김영주 의원은 농구선수를 하다가 노동운동에 투신해 정계로 진출한 이력의 소유자로 정

세균계로 분류되며,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김영주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면 여성 최초인 김상희 현 부의장에 이어 21대 국회 내내 여성이 부의장으로 활약하게 된다.

김영주 의원은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 간 소통의 메시지가 돼 대화와 협치의 의회정치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통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은 박병석 현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29일 이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 구성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자리를 둔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원 구성 협상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후반기 국회 출범 전에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대 국회에서 후반기 의장단이 기한에 맞춰 출범한 것은 지난 19대 국회의 정의화 의장이 유일하다. 연합뉴스

박지현, “내로남불 오명 벗겠다”

박 위원장 긴급 기자회견 열어

“면목 없다” 사과... “기회 달라” 당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맹목적 지지에 갇히지 않고 대중에 집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은 비난하는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겠다.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다.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며 “대의를 핑계로 잘못된 동료 정치인을 감싸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부르는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민주당이 돼야 제대로 개혁하고 온전히 혁신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에 가슴 뛰던 민주당의 모습으로 돌아가

겠다”고 했다.

그간 당내의 성 비위 사건이나 ‘내로남불’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비판과 자성론에 일부 강경파 의원과 지지층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6·1 지방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며 등 돌린 중도층을 향해 ‘읍소’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유세 현장에서) 왜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냐고 아픈 소리도 들었다. 정말 면목이 없다. 정말 많이 잘못했다”며 11초간 깊이 허리를 숙어 사과했다.

그러면서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 염지 없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시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꾸겠다. 자리에만 묵묵히 정치를 버리고 국민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후보들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상식과 국민을 믿고 깨끗하

게 전전하겠다”고 했다. 그는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평등을 위해 타오르는 불꽃이 돼 나아가겠다. 저희에게 기회를 달라”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박 위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견문을 읽었다. 여러 차례 입술을 깨물기도 했고, 울컥한 듯 말을 멈추거나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 위원장은 “더 짧은 민주당을 만들겠다. 청년 정치 육성·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겠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 기후 위기 대응, 사회적 불평등 해소, 연금개혁 등 다음 세대를 위한 당면 과제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15년째 지키지 않았다. 약속을 했으면,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입장문을 발표한 뒤 회견에서 “전국을 돌며 유세를 다니는데 정말 민심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가슴 깊이 체감했다”며 “민주당이 할 일은 정말 처절한 반성과 쇄신 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고, 더 늦기 전에 사과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힘 “국민, 민주당 외면은 기성 정치인 때문”

김형동 국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정작 사과할 사람은 뒤에 숨어”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기성 정치인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말 많이 잘못했다. 염치없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린다”며 지방선거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지방선거 위기의 급박함이 묻어난 대국민 호소였다”고 평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박 위원장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 심판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본인들에게 닥칠지 모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명분도 없는 출마에 나선 민주당의 기성 정치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들이 정치적 고향을 등지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입맛에 맞는 지역으로 도망 다니며 무리하게 출마에 나섰다 때문임을 진정 모르는가”라며 “정작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위원장 뒤에 숨었고, 국민 앞에서 민주당에 기회를 달라며 읍소하는 박 위원장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박 위원장이 민주당을 개혁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이 말하는 미래를 위한 민주당에는 여야 간 협치가 꼭 필요하다”며 “지방선거 이후에는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협치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허수민 기자



경기신문이

경기·인천지역 지방지 최초로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문의전화
031-268-8114

연간 구독자에게는
박재홍 화백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민평을 액자에 담아 개별 연락 후 보내드립니다.

무통장입금
농협 317-0001-9443-21 [입금주: 경기신문]

최초 결제일로부터 메일링 서비스 제공
1개월 구독권 - 10,000원 / 1년 구독권 - 110,000원

해당 서비스는 유료이며,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 분들은 경기신문 홈페이지 (www.kgnews.co.kr) 우측상단 '온라인구독' 클릭 → 구독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시면 사용가능합니다.

